

2011. 4. 4 제260호

# 세계도시동향

# 세계도시동향

2011. 4. 4 제260호

## 산업·경제

1. 지식경제 발전을 위해 '메이드 인 리버풀' 운동 전개 (영국 리버풀市)
2. 지역 활성화를 위해 'Only One 상점가 사업' 시행 (일본 오사카府)

## 건강·복지

3. 한국어 등 4개 외국어로 진행되는 무료 비즈니스강좌 개설 (뉴욕)
4.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사업' 시행 (도쿄)  
(토막기사) 이웃 간 융화와 교류를 위해 '거리파티' 개최 (런던)  
(토막기사) 공립학교 예체능 수업 확대 추진 (뉴욕)

## 방재·안전

5. 응급상황 및 재난 대비용 안내책자 배포 (뉴욕)
6. 태풍 및 쓰나미 피해 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문 관리시스템' 운영 (도쿄)  
(토막기사) 종교단체의 자원봉사단을 활용해 밤길 안전 도모 (영국 리버풀市)

---

## 도시환경

- 7.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하수 정화를 위한 단기 전략계획 수립 (뉴욕)
- 8. 지방정부 최초로 대안연료인 바이오메탄 충전소 설치 (영국 리즈市)

## 도시교통

- 9. 버스보다 선호도가 높은 노면전차 도입 추진 (미국 뉴올리언스市)
- 10.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일본 교토府)  
(토막기사) 보행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실천계획 발표 (뉴욕)

## 도시계획·주택

- 11. 주차공간을 소공원으로 바꾸는 'Parklets 프로그램' 확대 시행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12. 임대료 동향 및 임대차법 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 제공 (베를린)
  - 13. 주거의 질 개선, 사회통합,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향하는 '사회친화적인 도시' 조성 (독일)
-

## 산 업 · 경 제

### 1. 지식경제 발전을 위해 ‘메이드 인 리버풀’ 운동 전개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 광역권의 경제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해 설립된 지방정부 간 협력체인 머지 파트너십(The Mersey Partnership)이 첨단산업과 서비스 발전을 위해 ‘메이드 인 리버풀’ 운동을 벌임. 그간 지역 상품 홍보 전략이 주로 농산품 등 지역 특산물 알리기에 중점을 뒀던 데 비해 ‘메이드 인 리버풀’ 운동은 다양한 첨단기술 상품과 지식서비스에 지역성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음. 자동차산업과 같은 첨단제조업, 생명과학, 창조 및 디지털산업과 파이낸셜 서비스 등이 대상임.



【‘메이드 인 리버풀’로 선정된 재규어랜드로버사의 레인지 로버 신상품 소개】

- ‘메이드 인 리버풀’로 선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리버풀과 런던에서 별도로 홍보와 마케팅 행사를 펼침. 각종 행사는 관심 있는 투자자와 기업계 인사, 정치인 등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리버풀 지역의 창조성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쇼케이스(Showcase) 형식으로 열림.

- ‘메이드 인 리버풀’ 제도가 시작된 후 최초로 열린 행사는 리버풀의 상징인 리버풀 성당에서 개최된 자동차 신상품 쇼케이스임. 2011년 3월 22일 재규어랜드로버사의 신상품인 레인지 로버 제품이 리버풀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소개됨. 재규어랜드로버사가 이번 신상품을 리버풀 공장에서 출시함으로써 리버풀 광역권은 수백만 파운드의 투자를 유치하고 15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둠.
  - 재규어랜드로버사는 홍보전략으로 리버풀에 있는 생산시설은 세계 제일의 첨단기술을 자랑한다는 점을 강조함. 앞으로 150여 개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식경제 발전을 모토로 한 리버풀시의 이미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시는 이외에도 소니, 유니레버 등 다국적 기업을 유치한 성공사례를 차례로 공개할 계획임.
- 시는 이밖에도 중소기업을 홍보할 때 ‘창조성’을 강조할 계획임. 지식경제 발전에는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뿐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을 개척해온 중소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머지 파트너십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고 있음. 현재까지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LED 개발·생산업체인 Sign Lights社, 영국 내 유일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업체인 노바티스(Novartis)社, 기업의 위험 관리와 재정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업체인 Experian社,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Citrus Suite社 관련 사례가 수집됨.

([www.merseyside.org.uk/dbimgs/PR-MadeinLCRLaunch.pdf](http://www.merseyside.org.uk/dbimgs/PR-MadeinLCRLaunch.pdf))

([www.placenorthwest.co.uk/news/archive/8642-new-range-rover-stars-in-tmp-candaign.html](http://www.placenorthwest.co.uk/news/archive/8642-new-range-rover-stars-in-tmp-candaign.html))

## 2. 지역 활성화를 위해 ‘Only One 상점가 사업’ 시행 (일본 오사카府)

- 일본 오사카府에서는 상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오사카 Only One 상점가 사업’을 시행 중임. 이 사업은 상점가 및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타 상점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상점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府에서 모델 상점가에 보조금을 지원함.
    - 상점가에서 사업 제안을 받아 학계 관계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 상점가 활성화 사업계획을 확정함.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구체화에서부터 성과 확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업을 진행함. 상점가, 소매상, 상공업회의소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2011년에는 3건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사업목적이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파견하고, ② 상점가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200만 엔(약 2700만 원) 상한으로 보조하며, ③ 성과를 전문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함.
    - 전문가가 3년 동안 사업을 같이 진행하며, 사업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① 사업 제안(상점가 또는 지역에서 활성화를 위한 콘셉트 제안) → ② 심의위원회 검토(학계 관계자, 전문가가 실현가능성 등 검토) → ③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콘셉트 및 사업계획 확정 → ④ 계획 구체화(전문가와 함께 사업 추진) → ⑤ 성과 확산
- ([www.pref.osaka.jp/shogyoshien/shogyoshinko/onlyone.html](http://www.pref.osaka.jp/shogyoshien/shogyoshinko/onlyone.html))

## 건 강 · 복 지

### 3. 한국어 등 4개 외국어로 진행되는 무료 비즈니스강좌 개설 (뉴욕)

○ 뉴욕시는 한국계 소상공인을 위해 무료 비즈니스강좌를 개설함. 시는 영어로만 제공하던 상공인 강좌(Business Solution Course)를 2011년 3월부터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4개 외국어로도 진행한다고 밝힘.

- 시는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영어로만 국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규정함. 이를 위해 아직 뉴욕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거나 소상공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해 가장 수요가 많은 4개 언어를 선정해 소상공인의 창업절차 및 경영기술과 마케팅전략, 인사관리 등의 비즈니스 전반에 관한 강의를 제공함.

· 시는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상황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민계층 소상공인의 정착과 사업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2외국어 서비스를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임.

- 시는 이민자나 영어가 불편한 시민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해 이들을 격려하고 우수한 창업예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 아이디어 콘테스트’도 개최할 계획임. 성적이 우수한 5개 팀을 선발해 각 2만 5000달러(약 28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www.nyc.gov)

#### 4.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사업’ 시행 (도쿄)

- 도쿄都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과 삶의 조화’를 실현하려는 기업의 창의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함.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1년 3월 24일 2개 시범사업이 추가 선정됨. 이 사업은 都 장기비전계획인 ‘10년 후 도쿄’의 실행프로그램 중 하나임.
- 이 사업에는 도내에 본사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 단체, 협동조합이 응모할 수 있음. 추진하려는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2년 이내에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사업 시행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년 이내이며, 추가모집 사업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임. 프로젝트당 연간 1억 엔(약 13억 원) 이내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보조율은 대기업의 경우 1/2, 중소기업은 2/3임.
  -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사업으로는 ①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업무를 재검토하고 근무환경을 정비하는 ‘업무 검토 사업’, ② 연간 노동시간 등 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동시간 감축 사업’, ③ 육아나 간병 등의 이유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는 ‘다양한 근무형태 제공 사업’, ④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육아 양립 지원 사업’, ⑤ 육아, 간병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재육성 사업’, ⑥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지역 및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사회공헌 사업’, ⑦ 기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한 ‘자체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추진성과를 ‘일하는 방식 혁신 프로젝트 지정위원회’에서 발표해야 함. 발표내용은 都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3/2013oe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3/2013oe00.htm))

([www.hataraku.metro.tokyo.jp/equal/model/](http://www.hataraku.metro.tokyo.jp/equal/model/))

#### 이웃 간 융화와 교류를 위해 ‘거리파티’ 개최 (런던)

- 런던市는 이웃 간 융화와 교류가 활발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거리파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함. 市는 이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문제와 행사에 주민스스로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소외된 커뮤니티를 지원하고자 함.

- 市는 이웃 간 교류 활성화가 런던을 더욱 안전한 장소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함. 런던에서 혼자 사는 인구가 1970년대 이후 2배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게다가 시민의 60%가 지역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거리파티가 필요하다고 市는 강조함.
- 市는 거리파티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빅 런치(Big Lunch) 행사도 개최함. 이 행사는 매년 한 번씩 커뮤니티 주민들이 거리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프로그램임. 영국 전역에서 벌어진 2010년 행사 때에는 약 80만 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20%는 런던 행사에 참석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barbara-windsor-signs-become-mayor%E2%80%99s-%E2%80%98street-party-champion%E2%80%99](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barbara-windsor-signs-become-mayor%E2%80%99s-%E2%80%98street-party-champion%E2%80%99))

### 공립학교 예체능 수업 확대 추진 (뉴욕)

- 뉴욕시 교육청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수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 시 교육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학부모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학생들이 예체능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교육에서 정서 함양과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 음악, 미술, 연극, 무용의 4개 핵심 분야 예능수업을 모두 제공하는 초등학교는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임. 공립 중학교에서는 약간 늘고 고등학교는 약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4개 핵심 분야 예능수업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1개 이상의 예능수업을 제공하는 초등학교는 전체의 100%, 중학교는 99%로 나타남. 고등학교는 79%가 최소 2개 분야의 예능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됨.

(schools.nyc.gov)

## 방 재 · 안 전

### 5. 응급상황 및 재난 대비용 안내책자 배포 (뉴욕)

- 뉴욕시에서는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도시재난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12종의 브로슈어를 도시 곳곳에 배포하고 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재난 유형에 따른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있음. 홍보 브로슈어는 12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음.

브로슈어 이미지	내용	브로슈어 이미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일반정보</li> <li>- 재난대책 기본사항</li> <li>- 집 안팎에서의 비상계획</li> <li>- 대피 전 숙지사항, 대피 시 행동강령, 대피소 정보</li> <li>- 비상용 키트, 가방 준비</li> <li>- 며칠간 자급자족할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수에 관한 일반정보</li> <li>- 보험 및 사전 예측정보</li> <li>- 홍수 발생 전후 대처법</li> </ul>

【브로슈어 예시】

- 이밖에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재난대책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재난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임.

([www.nyc.gov/html/oem/html/ready/ready\\_guides.shtml](http://www.nyc.gov/html/oem/html/ready/ready_guides.shtml))

([www.ready.gov/america/index.html](http://www.ready.gov/america/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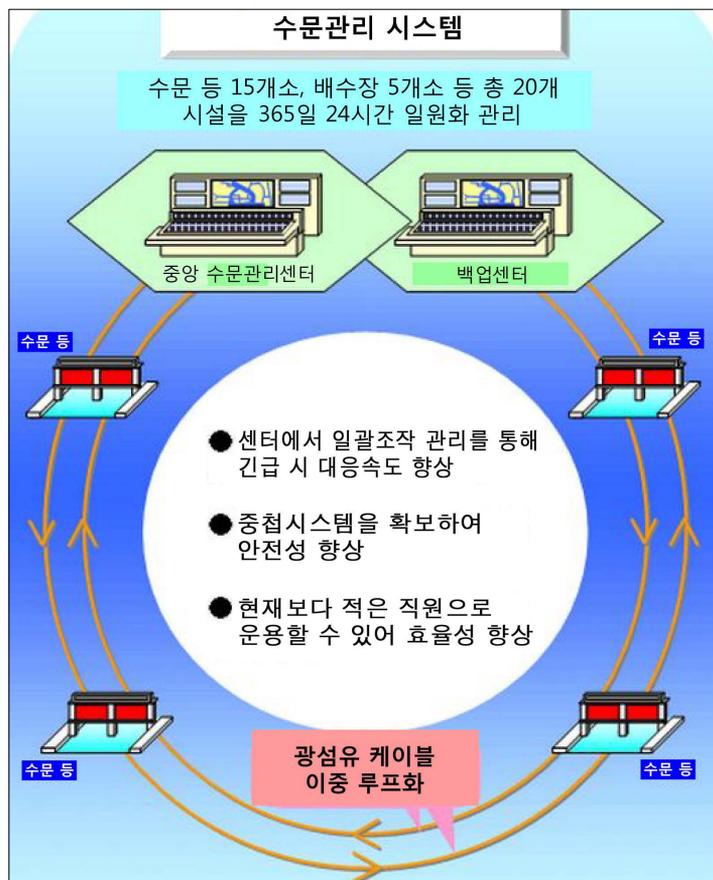
([www.disasterassistance.gov](http://www.disasterassistance.gov))

## 6. 태풍 및 쓰나미 피해 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문 관리시스템' 운영 (도쿄)

- 도쿄都는 태풍이나 쓰나미로 인한 수해와 토사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생활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하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동부저지대 지역(고토區, 스미다區, 에도가와區, 가쓰시카區, 이리카와區, 오타區)을 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조제와 호안을 건설하고 2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수문과 배수장(排水場) 등을

정비함. 이번에 재구축된 수문 관리시스템은 2011년 4월부터 가동됨.

- 현재 약 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동부저지대 지역에는 충적층(沖積層)이라고 하는 연약한 토사가 두껍게 쌓여 있고 아라江, 스미다江 등 큰 하천과 지천이 사방으로 흐르고 있어 과거부터 홍수나 쓰나미로 인한 수해가 종종 발생함. 또한 메이지 시대 이후 산업 발전을 위해 과도하게 지하수를 뽑아낸 결과 지반 침하가 발생해 동부저지대의 절반 이상이 만조 시에 수위보다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기존 시스템은 수위와 강우량 등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응급 시에는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작업하는 방식이었음. 이번에 구축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해 수문 등의 시설을 중앙 수문관리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채택함.

- 수문관리센터와 백업센터로 구성된 집중관리시설을 2중 루프의 광 섬유 케이블로 각 수문과 연결해 고속데이터통신을 통한 원격 제어를 실시함과 동시에 신속한 조작과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3/2013na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3/2013na00.htm))

#### 종교단체의 자원봉사단을 활용해 밤길 안전 도모 (영국 리버풀시)

- 영국에서는 기독교 자원봉사단체인 ‘거리의 목회자’를 적극 활용해 밤길 안전을 살피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음. 리버풀시는 2011년 여름부터 거리 목회자가 도심에서 방범 순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함. 선교를 내세우지 않고 밤길 안전을 위해 거리 지킴이를 자처해온 봉사단의 활동이 런던에서 성과를 내자 여러 도시로 활동범위를 넓힌 것임. 이들은 시정부, 경찰 등과 협조해 어두운 밤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막는 데 주력함.

- 거리 목회자는 직접 범죄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피해자 곁에 있으면서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등 치안 도우미 역할을 담당함. 식별하기 쉽게 옷을 맞춰 입고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함. 거리 목회자는 도시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봉사단체로 2003년 1월 런던에서 처음으로 치안 도우미 활동을 시작함. 활동지역마다 범죄발생률 감소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영국 내 100여 개 지역에서 활동 중임.

([www.streetpastors.co.uk/Home/tabid/255/Default.aspx](http://www.streetpastors.co.uk/Home/tabid/255/Default.aspx))

## 도 시 환 경

### 7.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하수 정화를 위한 단기 전략계획 수립 (뉴욕)

- 뉴욕市 환경보호국에서는 향후 4년간 환경보호 및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비용 절감과 안전성,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기 전략계획을 발표함. 市 환경보호국은 하루 10억 갤런 이상의 양질의 수돗물을 900만 시민에게 매일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하루 13억 갤런 이상 발생하는 하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이번 계획의 첫 번째 목표로 정함. 대기 질 개선과 소음 완화, 드라이클리닝·병원·공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유해물질의 위험도 최소화도 주요 목표로 삼음.
- 市 환경보호국에서는 뉴욕市 수돗물 사용인구가 일반가정과 기업체 합쳐 1일 840만 명에 달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계획을 수립함.
  - ①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②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제공, ③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자본 투자
- 市는 이와 같은 주요 전략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향후 3~4년간 실천할 수 있는 100가지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장기계획으로 연장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함. 100가지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전략계획 및 실행: ①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상하수도를 운영하

고 수자원 통계시스템을 도입하며, ②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통해 국내·외 우수 사례를 도입함.

- 소비자 서비스: ① 2012년까지 자동미터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② 수돗물 사용 및 요금 납입과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를 정상화하며, ③ 누수 발견 및 개선을 신속하게 하고, ④ 민원 관련 전화가 오면 30초 이내에 회신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며, 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⑥ 市정부 내 타 부서, 산업부문, 커뮤니티에 뉴욕市 수돗물을 홍보하며, ⑦ 공정하고 효율적인 요금 징수를 위해 소비자 정보데이터시스템을 개선하고 온라인 납부시스템으로 전환하며, ⑧ 사업 관련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업무를 장려하며, ⑨ 고객 중심의 사업설명서를 제공하고 허가 및 규제시스템을 간소화하며, ⑩ 허가 관련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⑪ 규제 법규 집, 지침, 안내서, 매뉴얼을 제작하며, ⑫ 사업자가 환경보호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운영: ① 빗물 활용을 통한 수자원 확보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② 수질 개선 및 유지를 위한 필터링시스템을 개선하고 차세대 상수도 관리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며, ③ 기존 상수(上水) 터널을 보수하고 신규 시설을 확보함.
- 지속가능성 계획: ①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물 사용자, 정책당국 간 소통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② 운하 수질에 대한 정량적인 관리를 시행하며, ③ 생태발자국과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④ 생태적으로 유해한 물질의 사용량을 줄이며, ⑤ 각 커뮤니티 단위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⑥ 1970년대 이후 최초로 대기오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함.



【상수터널 3호. 뉴욕市 상수도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에 있음】

([www.nyc.gov/html/dep/pdf/strategic\\_plan/dep\\_strategy\\_2011.pdf](http://www.nyc.gov/html/dep/pdf/strategic_plan/dep_strategy_2011.pdf))

## 8. 지방정부 최초로 대안연료인 바이오메탄 충전소 설치 (영국 리즈市)

- 영국 리즈市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15만 파운드(약 2억 6600만 원)를 투입해 바이오메탄 충전소를 설치함. 현재 리즈에는 바이오메탄 가스를 이용하는 대안연료 트럭이 2대 있음. 1대는 재활용폐기물 수거차량으로 바이오메탄 가스 전용이며, 나머지 1대는 바이오메탄과 디젤엔진을 함께 쓰는 일반폐기물 수거차량임. 2대 모두 2010년 7월에 도입되었음.
- 바이오메탄은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 등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자연 형태의 가스임. 市는 대안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예산도 절약하고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특히 대안연료 사용은 첨

단 녹색기술로서 공공기관이 적극 후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이미 도입된 트럭 2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기존 차량에 비해 60%에 불과함. 이번 충전소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대안에너지 차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市는 市 소유차량이 아니더라도 대안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소유기관에서 요청하면 충전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현재 영국에서 일부 지자체가 대안연료 차량을 운영하면서 임시 연료펌프 시설을 도입한 바 있지만 리즈市와 같이 영구적인 충전 시설을 갖춘 곳은 처음임.



【리즈市에 설치된 바이오메탄 충전소】

([www.bbc.co.uk/news/uk-england-leeds-12840080](http://www.bbc.co.uk/news/uk-england-leeds-12840080))

([www.leeds.gov.uk/page.aspx?pageidentifier=dca34310-fdfb-42e9-beed-e8709fbd850&pressReleaseld=4651](http://www.leeds.gov.uk/page.aspx?pageidentifier=dca34310-fdfb-42e9-beed-e8709fbd850&pressReleaseld=4651))

## 도 시 교 통

### 9. 버스보다 선호도가 높은 노면전차 도입 추진 (미국 뉴올리언스市)

○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市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을 위해 노면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市는 경제부흥을 위한 주정부 기금 4500만 달러(약 5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함. 이 노면전차는 다운타운의 'Canal Street'와 철도역 및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한 'Union Passenger Terminal'을 연결하는 2.4km 노선을 운행할 예정임. 새롭게 시도되는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면전차 노선은 기존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라 개발이 채 되지 않은 지역을 관통하게 됨. 이러한 이유로 회의론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市는 노면전차 개발계획 이후 아파트, 대형마트,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고 공사가 중단되었던 하얏트호텔도 곧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힘.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대중교통이 도시개발을 주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노면전차에 비해 버스노선 도입이 비용 면에서는 저렴하지만 이용자와 개발자는 대체로 버스보다 노면전차를 선호함. 노면전차는 버스에 비해 높은 정시성(定時性)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노면전차는 그동안 대중교통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받지 않았던 '재미'라는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버스와는 차별화된 '재미'를 이용객에게 제공함.

- 저명한 도시개발자인 Darrin Nordahl은 그의 저서 'My Kind of Transit'에서 대중교통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탑승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밝힘. 그는 많은 대중교통계획에서 '재미'라는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중교통 계획은 속력보다 승객의 편안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www.architectmagazine.com/planning/a-desire-named-streetcar.aspx](http://www.architectmagazine.com/planning/a-desire-named-streetcar.aspx))

## 10.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일본 교토府)

- 일본 교토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연중 실시함. 교토府는 관내 시민단체, 주민 등과 함께 안전한 교통체계 확립을 추진함. 특히 교통사고건수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뿐 아니라 운전매너 개선에 역점을 둬.
  - 이를 위해 ① 올바른 자동차 이용 확대, ②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강화, ③ 초저녁부터 라이트 점등, ④ 노면주차 방지, ⑤ 난폭운전 추방을 중점목표로 삼음.
  - 교토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세부계획을 추진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운전매너 향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을 장려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적극 실시함.
    - 고령자 교통사고 방지: 고령자의 운전매너를 개선하고 일반운전자

에게는 고령보행자에 대한 배려의식을 고취함.

- 자전거 안전이용 촉진: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를 타는 올바른 방법을 교육하며 보행자에 대한 배려의식을 강화함.
- 음주운전 추방: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운동을 전개함.

【교토府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고령자 비율】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164	136	119	130	120	121	91	102	101	96
고령자 사망자 수(명)	54	52	36	58	43	44	36	50	51	47
고령자 비율(%)	32.9	38.2	30.3	44.6	35.8	36.4	39.6	49.0	50.5	49.0

【교토府 내 자전거사고 발생건수와 보행자와의 사고건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전거사고 발생건수(건)	3755	3744	3745	3986	3892	3638	3591	3363	3280	3172
보행자와의 사고(건)	30	33	47	55	57	59	57	54	54	56

([www.pref.kyoto.jp/kotsuanzen/1299571444657.html](http://www.pref.kyoto.jp/kotsuanzen/1299571444657.html))

### 보행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실천계획 발표 (뉴욕)

- 뉴욕시는 2010년 말 보행자 안전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연구보고서로 발간해 구체적인 보행자 보호방법을 실천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이 연구는 보행자 안전을 증진하고 보도공간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됨.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자동차 탑승객보다 보행자 사망률이 10배 이상 높으며, ② 보행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의 36%가 운전자 부주의로 일어났고, ③ 보행자 인사사고는 대부분 규정속도 위반에 의해 발생했으며, ④ 보행자 인사사고의 2/3 이상이 이면도로보다는 주요 도로에서 발생했음.

- 시 교통국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해 보행자 안전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계획을 수립함.

- ① 1500개 교차로에 보행자를 위한 카운트다운형 신호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를 재설계하며, ② 속도제한이 시속 30km 이하인 도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행자 안전도를 확인하고, ③ 맨해튼의 주요 양방향통행로 2곳에 있는 20개소 교차로를 재설계함.

([www.nyc.gov/html/dot/downloads/pdf/nyc\\_ped\\_safety\\_study\\_action\\_plan.pdf](http://www.nyc.gov/html/dot/downloads/pdf/nyc_ped_safety_study_action_plan.pdf))

## 도시계획·주택

### 11. 주차공간을 소공원으로 바꾸는 'Parklets 프로그램' 확대 시행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미국 샌프란시스코市가 시행 중인 'Parklets 프로그램'은 포장도로를 공원화하는 프로젝트로 2~3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테라스 형식의 공공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임. 2010년에 시범사업으로 5곳을 소공원으로 전환했으며 2011년에는 27개 신청지 중 8곳을 허가함.
  - Parklets는 플랫폼처럼 주차공간에 데크를 설치하고 간단한 조경디자인만 하기 때문에 시공이 간단함. 자전거 거치대와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해 카페의 테라스와 같은 분위기를 내고, 모든 시설물은 무료로 제공됨.
    - 주로 카페와 같은 소규모 상점 앞 주차공간에 만들어짐. Parklets가 市 소유시설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얻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신청자인 상점에서 하도록 함.



【Parklets 기획단계에서의 렌더링(Rendering)】



【주차공간을 Parklets로 조성한 사례】

([www.sfexaminer.com/blogs/under-dome/2011/03/more-san-francisco-parking-spots-be-converted-parklets#ixzz1HMX68KLR](http://www.sfexaminer.com/blogs/under-dome/2011/03/more-san-francisco-parking-spots-be-converted-parklets#ixzz1HMX68KLR))  
([http://sfpavementtoparks.sfplanning.org/divisadero\\_parklet.html](http://sfpavementtoparks.sfplanning.org/divisadero_parklet.html))

## 12. 임대료 동향 및 임대차법 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 제공 (베를린)

- 베를린 시민의 85%는 월세의 주택임대 형식으로 거주함. 게다가 베를린의 주택이나 아파트는 형태도 다양하고 월세의 주택임대 방식도 다양함. 그만큼 이사가 잦고 주택임대에 관련된 시민의 문의가 많음. 이제까지 베를린에서는 집세 동향이나 세입자 및 집주인의 권리에 관한 문의를 여러 공공기관의 상담소에서 나누어서 다루어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확히 풀어줄 상담자를 찾기가 어려웠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를린市 도시발전국은 집세 동향과 임대차법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 서비스 전화를 최근 개설함.

- 중앙 서비스 전화 이용시간은 월~목요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금요일에는 오후 2시까지임. 주요 상담내용은 월세 인상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자신의 집과 비슷한 조건에 있는 다른 주택의 월세 수준, 현재의 월세로 다른 자치구로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 전기세·수도세·쓰레기 수거비용의 적정성, 영세민 사회주택의 월세 동향, 법적 대응의 가능성 등임.
  - 이러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는 베를린 임대차법과 집세 동향에 근거해 이루어짐. 집세 동향은 독일의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연구소인 GEWOS GmbH社가 조사·분석한 자료를 베를린 임대 관련 시민 연대 및 연구팀이 최종 검토해 작성한 데이터임.
  - GEWOS GmbH社는 매년 9~12월 베를린의 임대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임대료 데이터를 도출함. 설문대상은 세입자와 집주인이며 조사항목은 집 크기와 집세를 비롯해 내부 시설도 포함됨. 이렇게 만들어진 집세 데이터는 세입자 연대, 집주인 연대, 부동산 임대차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6개 연구팀에서 최종 검토한 후 일반에 공개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103/nachricht4250.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103/nachricht4250.html))

([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mietspiege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mietspiegel))

### 13. 주거의 질 개선, 사회통합,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향하는 ‘사회친화적인 도시’ 조성 (독일)

- 새로운 도시건설 촉진 프로그램인 ‘사회친화적인 도시’는 독일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정책의 핵심요소이며 도시계획·경제·사회적 문제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도시의 인구·경제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있음. 사회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과업에는 주택 개량, 주거의 질 향상, 매력적인 주거환경 형성 등이 포함됨.



【사회친화적인 도시의 한 형태】

-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교육, 직업부문에서의 통합 지원정책과 도시재생을 위한 건설 투자정책을 결합하는 것임. 이를 위한 전략과 정책은 목표집단과 지구 상황에 맞게 만들어지고, 이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침으로 활용됨.
  - 이 프로그램은 1999년 연방정부와 州정부가 도입하였고 35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약 570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왔음. 연방정부는 전체 프로그램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약 9억

4100만 유로(약 1조 4650억 원)를 이 프로그램에 투입함. 州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 것까지 합하면 2010년까지 28억 유로(약 4조 3600억 원)가 이 프로그램 추진에 소요됨. 2011년에는 약 2850만 유로(약 440억 원)의 연방기금이 투입됨.

-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기회 창출에 기여하게 됨. 지구 내의 모든 주체들은 주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공동 참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되고 이웃 간 유대가 견고해짐. 지구 현장에서 중요한 파트너는 주택회사, 교육기관, 복지단체, 재단, 협회 등임.
  - 청소년과 장기 실업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노동시장을 확대하며 교육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임. 이를 위해 2008년부터 유럽사회기금을 활용해 교육 개선, 취업 촉진, 지역산업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주민과 지역민의 통합은 연방정부와 州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과업 중 하나임. 국가 차원의 통합계획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사회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연방 교통건설도시발전부의 주도로 구성된 '작업단체'는 지역통합을 위한 여러 세부 시책을 구상함.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현장에서의 통합'이란 포럼에서 성공적인 통합과 결속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과 세부 정책을 정함. 이는 연방정부가 수립하는 실행계획에 포함되며 2011년 가을쯤에 최종 확정될 예정임.

([www.bmvbs.de/SharedDocs/DE/Artikel/SW/soziale-stadt.html](http://www.bmvbs.de/SharedDocs/DE/Artikel/SW/soziale-stadt.html))